

Research Center

2016년 12월 12일

투자전략 Daily

• 시황분석

탄핵 이후의 시장 흐름은?

• 중화권 증시 동향

중국 증시 반등에 외국인 매도 증가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백산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모두투어 외 5종목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켈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철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원 자 재 | 서태중 ☎ 3276-6184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63.36	1,989.86	1,991.89	2,031.07	2,024.69	
	등락폭	-7.25	26.5	2.03	39.18	-6.38	
	등락종목	상승(상한)	205(2)	609(0)	317(1)	620(0)	468(1)
		하락(하한)	629(0)	210(0)	505(0)	202(0)	341(0)
	ADR	80.02	82.19	87.87	85.52	84.85	
	이격도	10 일	99.29	100.59	100.68	102.35	101.77
		20 일	99.24	100.62	100.64	102.54	102.11
	투자심리	70	70	70	80	70	
	거래량	(백만 주)	237	215	204	239	220
	거래대금	(십억 원)	3,072	3,795	3,660	4,956	3,690
코스닥	코스닥지수	575.12	581.35	578.52	584.62	594.35	
	등락폭	-11.61	6.23	-2.83	6.1	9.73	
	등락종목	상승(상한)	202(2)	811(3)	399(3)	727(1)	804(1)
		하락(하한)	917(0)	283(0)	705(2)	357(0)	301(0)
	ADR	86.31	87.36	87.07	88.09	89.65	
	이격도	10 일	96.78	98.32	98.20	99.37	101.08
		20 일	94.78	96.15	95.85	97.17	99.02
	투자심리	40	40	40	50	50	
	거래량	(백만 주)	621	546	602	672	594
	거래대금	(십억 원)	2,584	2,471	2,797	2,881	2,76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456.5	1,430.7	775.2	232.8	73.9	144.7	97.7	7.7	218.4	35.2
	매도	1,577.5	1,374.9	718.5	135.1	72.3	232.7	75.2	11.6	191.6	26.8
	순매수	-121.0	55.8	56.7	97.7	1.6	-87.9	22.5	-4.0	26.8	8.4
	12월 누계	-1,192.5	265.7	914.9	309.3	77.0	-90.7	104.4	-21.7	536.6	12.0
	16년 누계	-8,353.2	10,090.1	-4,639.7	-816.9	1,136.1	-5,748.9	-1,013.6	-977.9	2,781.9	2,902.8
	코스닥	매수	2,460.2	189.3	115.3	45.2	11.1	25.1	10.2	1.9	21.7
매도		2,533.3	153.8	81.3	20.0	7.7	24.5	10.2	1.7	17.4	15.6
순매수		-73.1	35.5	33.9	25.2	3.5	0.7	0.0	0.2	4.3	3.7
12월 누계		-4.9	86.2	-31.7	47.4	7.6	-37.0	-13.1	1.0	-37.5	-49.7
16년 누계		5,886.1	750.7	-4,445.0	-206.1	-318.7	-1,674.6	-751.1	-151.5	-1,343.5	-2,191.6

탄핵 이후의 시장 흐름은?

2016년 Target KOSPI	2,180pt
12MF PER	10.08배
12MF PBR	0.94배
Yield Gap	8.2%P

- ▶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장은 정치 리스크 완화로 인식. 우상향 흐름 예상
- ▶ 12월 핵심 이슈: 중국 시장경제지위 확보와 연준 FOMC회의
- ▶ 투자전략: 환율과 무역 환경의 변화 감안시 수출주 비중을 확대할 필요

■ 대통령 탄핵과 주식시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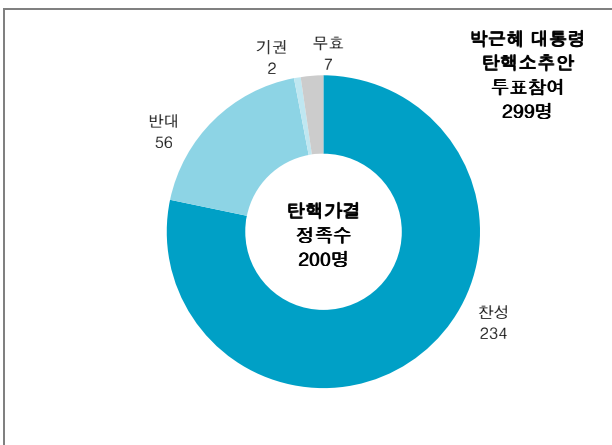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친박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였다. 야권 3당과 무소속 의원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탄핵을 지지했다. 가결 정족수 200명을 무난하게 상회했다.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위축되지 않았다. 표결 시간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는 탄핵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역외시장에선 긍정적인 결과들이 확인됐다. 일례로 KOSPI200 야간선물은 전일대비 0.23% 상승한 258.80p로 마감했다.

소버린 리스크와 관계된 CDS 프리미엄은 전일과 동일한 42.5bp를 나타냈다. 100만명이 운집한 3차 촛불집회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탄핵 주장으로 CDS 프리미엄이 54.5bp로 급등했던 한 달 전에 비하면 금융시장은 상당히 차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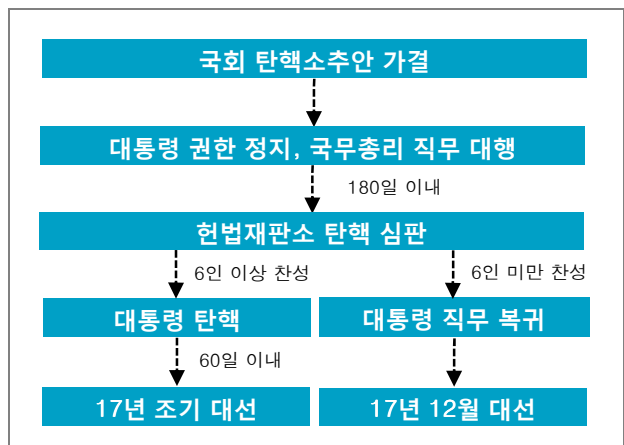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잠시나마 잦아들 전망이다. 기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까지다. 이후 전망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만약 6인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금융시장은 정치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제 펀더멘털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은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림 1]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자료: 언론보도, 한국투자증권

[그림 2]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일정



자료: 언론보도, 한국투자증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유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우리는 완만한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기의 흐름이 아닌 2016년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기의 증시 궤적을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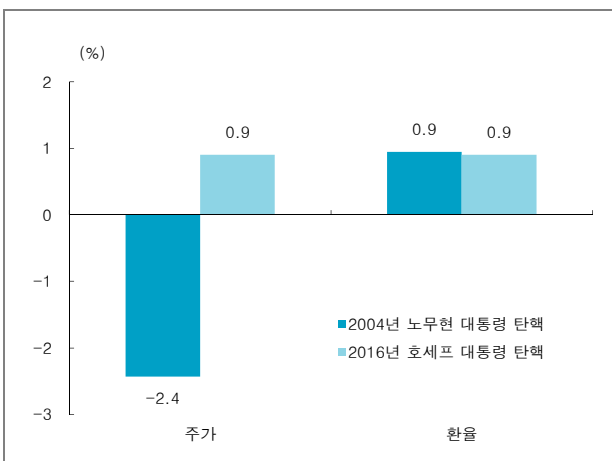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돌아보자. 당시엔 이번과 달리 장중에 탄핵안이 가결됐다. KOSPI는 2.4%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0.9% 상승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탄핵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보다 급진적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즉, 탄핵이란 악재를 충분히 소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탓에 시장의 변동성은 급격하게 확대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2004년과 다를 전망이다. 시장은 이미 한 달 이상 탄핵 가능성을 주가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탄핵 가결 이후 처음 열린 야간선물 시장에서 KOSPI200 선물이 상승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현물시장도 선물시장처럼 불확실성 해소를 호재로 반영해 레벨을 높여갈 공산이 크다.

올해 브라질 대통령 탄핵 사례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브라질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는 비리 스캔들과 재정회계법 위반으로 올해 5월 탄핵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3개월 뒤인 8월 31일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이어갔다. 오랫동안 지속된 반정부 시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시장은 정권 교체를 호재로 해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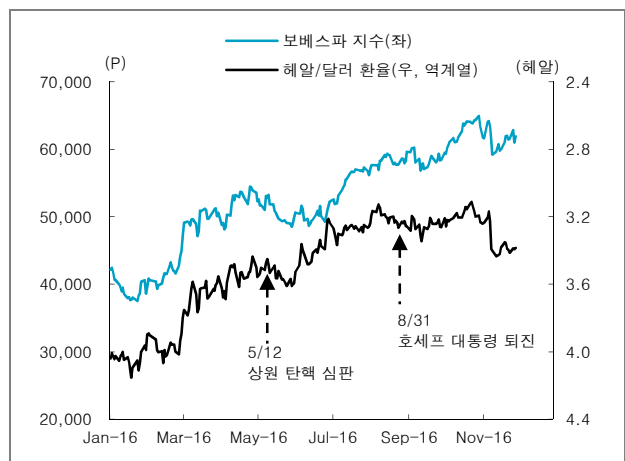
당분간 국내 증시도 브라질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시장은 정치 불확실성에 민감했던 과거와 달리 다시 글로벌 경제에 이목을 집중할 것이다. 잠시 정치 이슈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과거 탄핵 사례: 2004년 한국과 2016년 브라질



주: 대통령 직무정지 당일 변화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2016년 브라질 금융시장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중국 시장경제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 고조

■ 12월에 주목해야하는 이벤트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우리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확보와 12월 FOMC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두 변수는 한국의 수출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문제를 살펴보자.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15년간 ‘비시장경제지위’를 유지하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이 조항은 12월 11일 이후로 만료된다. 중국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장경제국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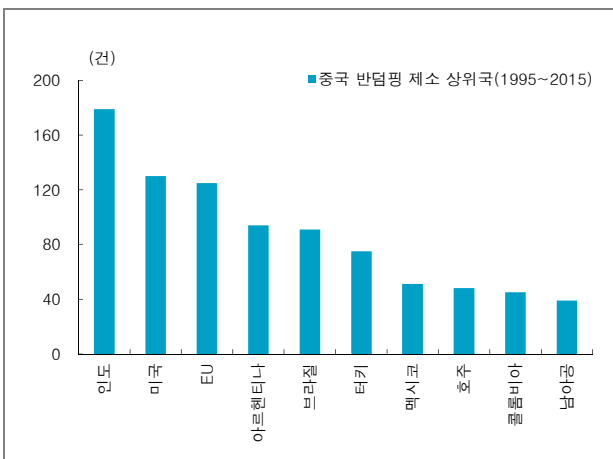
시장경제지위 확보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인도, 미국, EU 등은 중국을 반덤핑 국가로 계속해서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중국산 제품에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이번에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공인받으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덤핑마진 계산 과정에서 국내가격보다 비싼 제3국 가격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아서다. 수출 규제 완화로 해석 가능한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여전히 WTO 조항 만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정부 통제권에 있으므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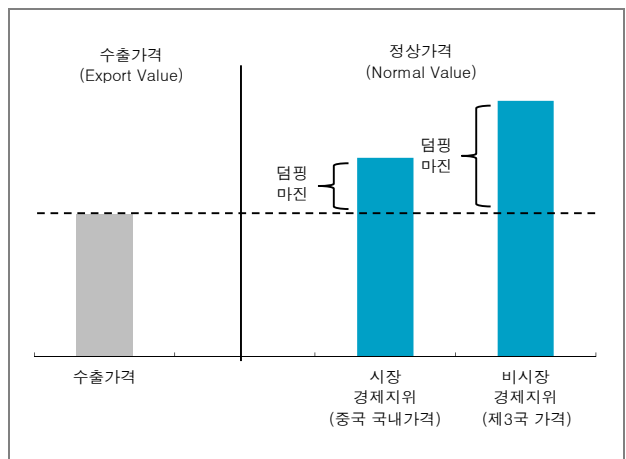
미국은 통화의 태환성, 노사협상 여부, 정부 통제 등을 기준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을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기조다. EU는 제조업 보호를 위해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서구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림 5] 중국 반덤핑 제소 상위 10개국



자료: WTO, 한국투자증권

[그림 6] 덤핑마진: 시장경제지위 여부에 따라 차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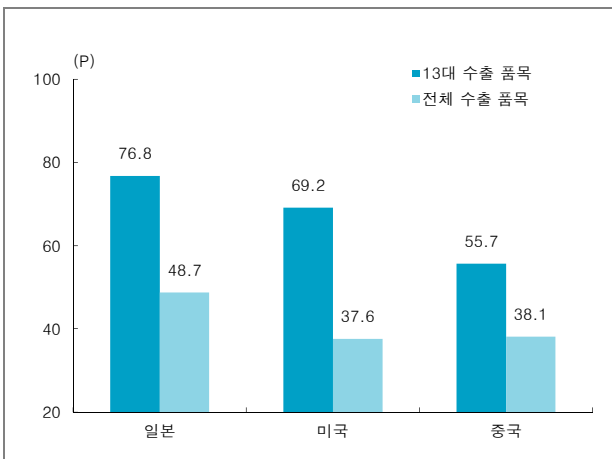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는 낮은 수준

중국 수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수출품에 대한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될 것 이란 걱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 이슈가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교역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핵심 경쟁국이 아니다. 낮은 수출경합도에서 보듯 주력 수출 품목이 다르다. 한국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13대 품목을 보면,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는 55.7p에 불과하다. 일본과 비교하면 수치는 20p 이상 벌어진다. 전체 품목의 경합도역시 38.1p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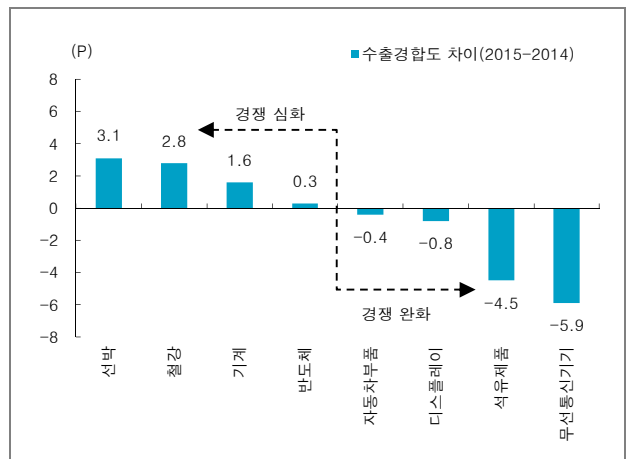
물론 몇 가지 품목은 반덤핑과 관련해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이 해당된다. 조선, 철강이 대표적이다. 반면, 주력 수출품인 IT, 자동차 부품은 중국과의 경쟁 강도가 약해진 상태다. 알다시피 해당 품목은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수록 상대적 수혜가 예상된다.

[그림 7] 한국과 주요국 간의 수출경합도



주: 2015년 기준
자료: KITA, 한국투자증권

[그림 8] 한·중 수출경합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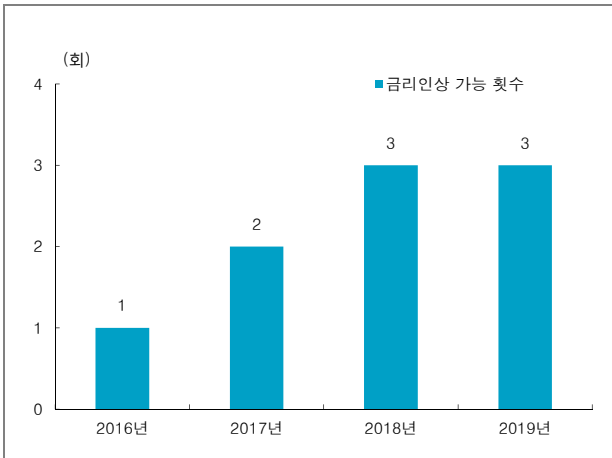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 13대 품목 중에서 수출경합도 50p 이상 품목
자료: KITA, 한국투자증권

연준 12월 FOMC 금리를 인상할 전망

또 다른 중요 변수는 FOMC회의다. 한국시간으로 15일 새벽이면 결과가 발표된다. 현재 25bp 금리 인상이 확실하다. 우호적인 경제지표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번 FOMC회의 이후에 주목할 것은 점도표다. 옐런 연준의장 연설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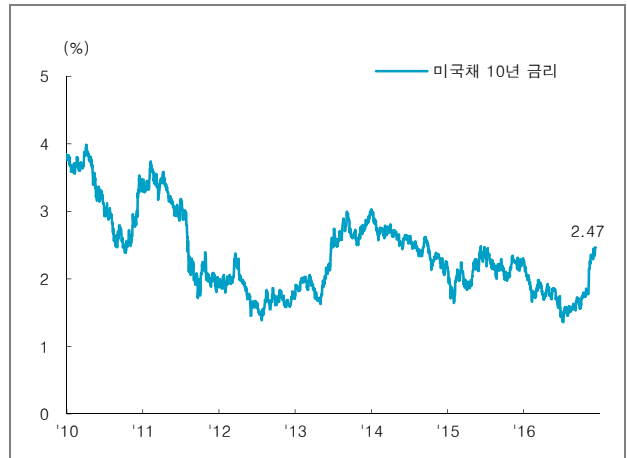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상 횟수가 가장 중요하다. 3개월전 FOMC 점도표는 올해 1회, 내년 2회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만약 이번 회의의 점도표에 내년 2회 이상의 인상 신호가 나타나면,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 강세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달러 강세 연장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때 원/달러 환율 레벨도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분기 환율도 전년동기 레벨에 근접해 수출주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림 9] 9월 FOMC 점도표: 금리인상 가능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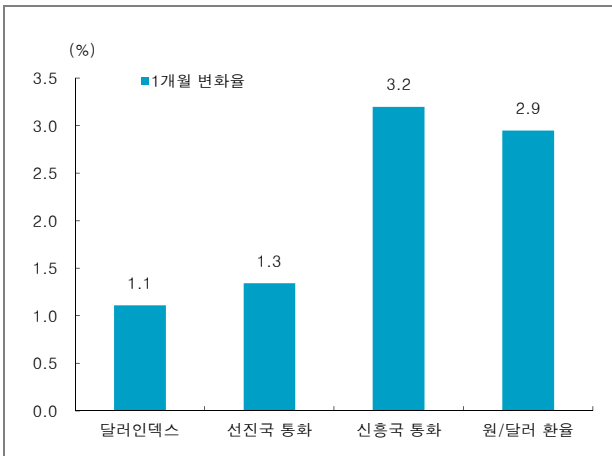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미국채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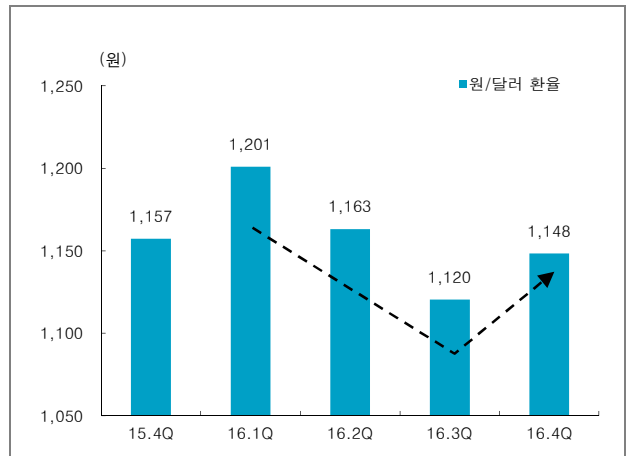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최근 1개월 달러 가치 상승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분기별 평균 원/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투자전략: 수출주 비중을 확대할 필요

수출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 유지

이상을 요약해보자. 주식시장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기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주가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던 정치 리스크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탄핵 정국을 겪었던 브라질처럼 한국 증시도 악재를 털어내고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가결로 인해 앞으로는 국내 정치보다 글로벌 경제 이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이슈 중에서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확보와 연준의 12월 FOMC 회의에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전자는 보호무역주의, 후자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두 변수가 한국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시장경제지위 조항을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를 보면, 보호무역주의 타겟은 중국이다.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산 제품이 상대적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IT와 자동차부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12월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 동시에 금리 인상 횟수를 알려주는 점도표도 발표된다. 특히 달러 강세는 점도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금리와 달러는 상승 기조에 위치할 전망이다. 이때 원/달러 환율도 높아져 한국 수출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내수보다 수출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개월 수익률을 살펴보면, 주도주는 역시 내수보다 수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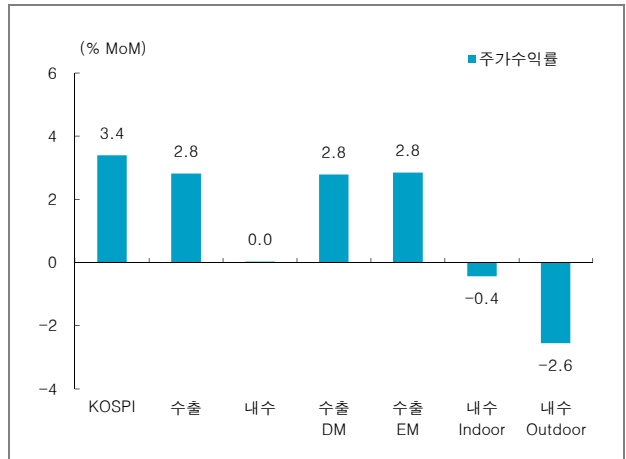
수출주 선정에 있어서는 중국과 경쟁 강도가 낮고, 환율 상승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종목이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등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13] 수출주와 내수주의 상대강도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수출주와 내수주의 1개월 수익률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코스피는 전주대비 2.7% 오른 2,024.69pt로 마감했다.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로 하락 출발한 지난주 증시는 ECB의 통화완화 기대로 반등했다.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만기일은 수급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관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 약 1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내렸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7bp 하락했다.

거래소 업종 기준으로 철강금속(+8.1%), 전기가스(+5.3%), 화학(+4.1%)이 강세였고, 건설(+0.2%), 보험(+0.2%), 섬유 의복(+0.4%) 업종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철강 가격 상승에 힘입어 POSCO가 11.2% 급등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강세를 보이며 전기가스업종을 견인했다. 가격모멘텀 개선으로 디스플레이의 12MF EPS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율 및 등락률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전체 기업	2.07	0.79	3.47	0.18	1.14	10.07	0.93	
에너지	0.48	0.00	13.05	0.52	-0.47	7.26	0.86	
소재	6.69	6.13	12.63	0.34	1.76	9.38	0.79	
화학	5.09	1.58	-1.52	0.52	2.17	8.42	0.98	
비철금속	6.64	8.03	12.28	0.09	3.52	11.29	1.21	
철강	9.72	13.79	47.36	0.10	0.24	10.48	0.52	
산업재	0.93	-3.41	-2.80	-0.10	1.19	12.32	0.96	
자본재	1.00	-3.01	-0.40	-0.26	0.29	12.58	0.93	
국방/항공	-2.22	0.52	-16.30	-0.18	-3.98	17.55	2.06	
건설	1.89	-5.56	5.57	-0.87	0.18	7.66	0.73	
기계	-0.76	-3.09	7.71	-0.18	-1.30	12.41	0.90	
조선	1.85	0.93	30.91	-0.71	-2.54	12.97	0.63	
상업서비스	0.78	-2.73	-15.58	0.00	1.20	19.80	2.08	
운송	0.34	-7.14	-15.94	0.90	7.31	9.71	1.07	
경기소비재	2.38	-4.05	-13.47	-0.09	-0.36	9.35	0.92	
자동차/부품	4.09	-2.24	-5.37	-0.04	-0.54	6.26	0.63	
내구소비재/의류	1.11	-8.27	-20.19	-0.16	-0.29	16.71	2.64	
화장품	1.47	-9.42	-23.98	-0.11	0.05	19.96	3.54	
호텔/레저	1.04	-0.34	-17.21	0.06	-0.43	16.20	2.02	
미디어	1.07	-7.52	-28.70	-0.22	-0.91	16.29	1.58	
유통	0.32	-0.38	-11.09	-0.26	0.93	12.33	0.69	
필수소비재	0.72	-2.79	-15.66	0.07	0.15	14.28	1.36	
음식료/담배	0.87	-2.60	-15.37	0.09	0.47	14.23	1.38	
의료	-3.02	-8.73	-20.28	0.23	2.10	29.22	2.64	
제약/바이오	-3.18	-8.78	-21.04	0.44	2.69	31.18	2.62	
금융	3.61	5.48	10.80	0.04	0.01	8.94	0.61	
은행	5.98	7.81	26.27	-0.03	0.29	7.48	0.51	
증권	0.98	-4.62	-11.05	0.21	-0.21	8.67	0.62	
보험	0.97	6.78	-0.27	0.08	-0.59	11.63	0.79	
IT	1.88	4.46	21.22	0.72	3.82	10.60	1.26	
소프트웨어	0.23	-6.13	-10.01	-0.18	0.17	19.07	2.36	
하드웨어	-1.77	-3.72	-16.31	-0.34	1.68	11.39	1.01	
반도체	2.50	8.43	40.10	0.75	4.21	9.68	1.25	
디스플레이	2.87	1.95	12.34	3.11	9.70	9.79	1.00	
통신서비스	2.52	0.53	7.81	-0.01	0.09	11.43	0.94	
유틸리티	0.08	-2.30	-10.00	-0.93	-3.06	4.52	0.40	

주 : 표에 제시된 업종별 수익률은 12월 8일 종가 기준, 추정치는 그 직전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국내 펀드 시장 동향

전 펀드군에 걸쳐 순유출세가 관찰됐다. 4주 연속 유입세를 이어오던 인덱스주식형 펀드는 순유출로 전환했다. 연말 특수로 배당형펀드에만 꾸준히 자금이 들어왔다. 한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는 여전히 인기를 끄는 반면, 유럽 관련 펀드에 대한 관심은 시들어가는 모습이다.

〈표〉 유형별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

	설정액(억원)				설정액 증감(억원)			
	일반 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일반 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2016-09-23	212,431	34,763	79,307	52,101	-9	42	-599	241
2016-09-30	210,638	34,687	78,768	52,037	-1,793	-76	-540	-64
2016-10-06	209,713	34,578	77,931	51,982	-925	-109	-836	-54
2016-10-13	208,694	34,433	78,376	52,114	-1,019	-146	445	131
2016-10-20	208,073	34,192	78,116	52,029	-621	-241	-260	-85
2016-10-26	207,407	34,034	79,232	52,078	-667	-158	1,115	48
2016-11-03	206,219	33,947	78,427	52,317	-1,187	-87	-804	240
2016-11-10	206,110	33,815	81,538	52,433	-109	-132	3,111	116
2016-11-17	206,063	33,814	84,967	52,765	-47	-1	3,428	332
2016-11-24	205,814	33,803	85,601	52,845	-249	-12	634	80
2016-12-01	205,215	33,805	89,562	53,351	-599	2	3,961	506
2016-12-08	204,757	33,740	87,732	53,424	-458	-64	-1,830	73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표〉 주요 설정액 증감 펀드

(단위: 억원)

	회사명	펀드명	투자지역	증감액	설정원본
설정액 증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2,172	19,407
	KB자산운용	KBSTA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454	9,206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	국내	325	14,141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KIN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240	8,380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KOSEF200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주식)	국내	134	5,211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해외	70	772
	흥국자산운용	흥국미국배당우선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68	3,272
	KTB자산운용	KTB VIP밸류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50	106
설정액 감소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141	1,312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유로증권자투자신탁A(주식)	해외	-70	7,027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65	1,392
	교보약사자산운용	교보약사파워K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55	4,444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스증권투자신탁 4[주식]	국내	-51	2,678
	KB자산운용	KB마이플랜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	-48	11,580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유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37	282
	한화자산운용	한화ARIRANG KOSP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33	7,999

주: 2016년 12월 07일 기준, 설정원본 1천억원 이상 공모 주식형 펀드 대상, 같은 펀드 내 자금 유출입 규모가 가장 큰 클래스만 포함
 다만 설정일이 2015년 이후일 경우 설정원본이 1천억원 이하라도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3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자금 유출입

지난 주 한국 관련 4대 펀드에서는 33.4억달러의 자금이 유출되었다. 선진국과 신흥국 펀드에서 각각 10.8억달러와 22.6억달러가 빠져나와 신흥국으로부터의 유출이 더 컸다. 채권형 펀드군은 순유출이 지속됐다. 그러나 미국 채권 펀드가 순유입으로 돌아서며 유출폭이 축소되었다.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6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2,344,444	0.9%	-1,190.8	717.5	10,846.9
	Pacific	54,928	6.0%	115.4	143.1	939.2
신흥국 투자펀드	Asia ex-Japan	345,335	14.6%	-1,338.3	-2710.9	-22,103.1
	Global Emerging	448,515	9.8%	-925.2	-7270.4	23,364.9
	Latin America	24,536		118.5	4.7	1,267.6
	Europe/Middle East/Africa	42,724	6.0%	261.8	772.4	-920.7
주요 국가 및 국가군	Japan	342,703		825.1	-1451.4	7,601
	Western Europe	1,143,920		-1,161.5	-2494.9	-105,992
	United States	4,406,995		1,120.7	41368.5	-49,227
	China +Greater China	113,931		-122.8	-536.0	-8,975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6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3,965,743	-1,140	-32,010	154,025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318,687	-2,394	-12,075	25,845
	- EM 경화(\$) 채권	136,980	-1,152	-6,899	19,307
	- EM 신흥국 통화 채권	136,301	-1,237	-4,509	5,284
	- EM Blend 통화 채권	45,407	-5	-667	1,254
글로벌 채권 펀드		1,280,406	-1,286	-8,270	7,238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90,839	1,839	-1,691	1,691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875,812	701	-9,975	119,251
	- Municipal	380,397	-2,047	-8,498	22,291
	- Floating Rate	90,784	1,675	3,766	5,630
	- Inflation Protected	64,349	-3	1,158	9,911
	- Inter. Term Corp.	39,926	226	-56	6,369
	- Inter. Term Funds	489,446	355	-233	49,450
	- Inter. Term Gov.	33,702	11	-433	2,089
	- LT Bond	6,953	-94	-199	-237
	- LT Corp.	54,019	-676	-1,556	5,070
	- LT Gov.	19,077	-206	-1,851	-666
	- MBS	106,986	-855	-1,981	13,412
	- ST Bond	251,358	526	-65	-9,235
	- ST Corp.	42,310	196	681	5,907
	- ST Gov.	38,585	542	-1,342	-707
	- Total Return	257,919	1,052	633	9,967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754,656	33,591	50,713	-32,609
	- MMF 채권펀드	3,792,909	35,196	54,902	-6,584
	- Balanced Funds	961,748	-1,605	-4,188	-26,025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4 : 주간 글로벌 업종별 등락을 상위/하위

금주 상승률 상위 업종은 육상운송, 저축은행, 철강, 사무비품, 자동차

벤치마크인 Bloomberg World Index는 지난주 2.05% 상승했다. 5일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부결되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였다. 하지만 ‘트럼프플레이션’에 기반한 투자 심리가 잔존했고, 국민투표 부결이 ECB의 테이퍼링 지연 기대감으로 이어져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업종 중에서 육상운송, 저축은행, 철강, 사무비품, 자동차가 올랐고 광고, 바이오, 제약이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공약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며 육상운송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과 철강 역시 트럼프 공약의 대표 수혜 업종이다. 1월 철광석 선물가는 5% 이상 올랐다.

블룸버그 운송 지수와 다우존스운송지수는 각각 4.11%, 7.02% 상승했고, 자동차 리스 업체인 GATX는 8.42% 급등했다. 동 업종 대표 업체들인 아머코와 그린브라이어는 같은 기간 7.12%, 3.56%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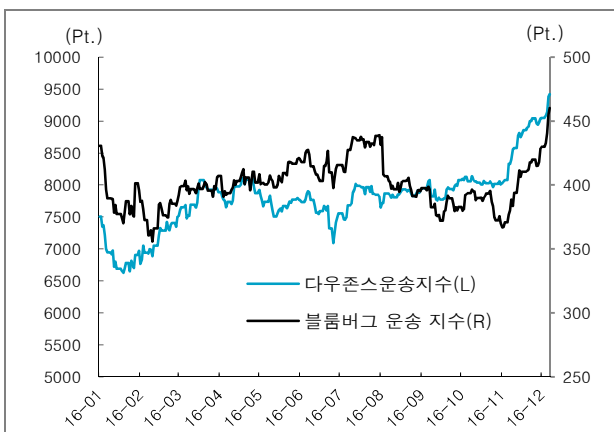
<표>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 수익률 상승/하락 상위

(단위: %)

상승 섹터	WTD 수익률(%)	YTD 수익률(%)	하락 섹터	WTD 수익률 (%)	YTD 수익률 (%)
육상운송	7.02	6.81	광고	-1.81	-5.24
저축은행	6.45	22.67	바이오	-1.29	-18.06
철강	5.77	43.01	제약	-0.92	-14.81
사무비품	5.17	14.09	건설	-0.79	0.73
자동차	4.94	-3.97	항공/국방	-0.56	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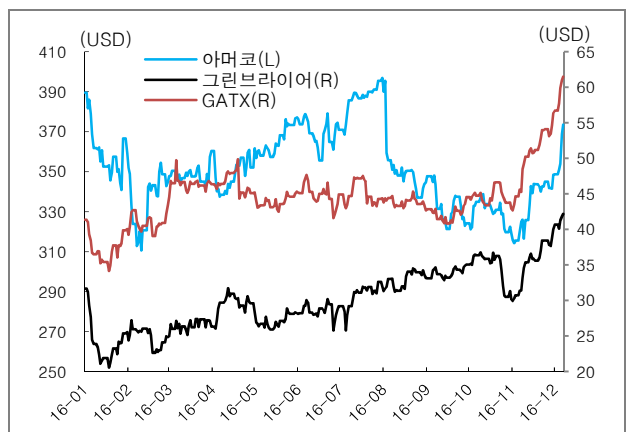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주요 운송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대표 운송 기업 주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5 : 주요 증시 일정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日> 10월 핵심지수 MoM (n/a, 1.1%, -3.3%) 11월 PPI YoY (n/a, -2.3%, -2.7%) 10월 3차 산업 지수 MoM (n/a, 0.3%, -0.1%)	中> 11월 광공업생산 YoY (n/a, 6.1%, 6.1%) 11월 소매판매 YoY (n/a, 10.2%, 10.0%) 유럽> 12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15.8)	美> FOMC 금리 결정 (n/a, 0.75%, 0.5%)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0.7%) 11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3%, 0.8%) 11월 광공업 생산 MoM (n/a, 0.1%, 0.0%) 日> 10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1%)	韓> 금융통화위원회 (n/a, 1.25%,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55, 258) 11월 CPI MoM (n/a, 0.2%, 0.4%) 12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n/a, 54.3, 54.1) 日> 12월 닛케이 PMI 제조업 (n/a, n/a, 51.3) 유럽>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53.7, 53.7)	美> 11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230, 1323) 유럽> 11월 CPI YoY (n/a, 0.6%, 0.6%) 11월 CPI 근원 YoY (n/a, 0.8%, 0.8%)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韓> 11월 PPI YoY (n/a, n/a, -0.2%)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日> 10월 전체산업 활동 MoM (n/a, n/a, 0.2%)	美> 3Q GDP 연간화 QoQ (n/a, 3.3%, 3.2%) 11월 기준주택매매(백만) (n/a, n/a, 5.6)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유럽> 12월 소비자대지수 (n/a, n/a, -6.1)	美> 11월 선행지수 MoM (n/a, 0.2%, 0.1%) 11월 개인소비지수 MoM (n/a, 0.5%, 0.3%)

정리: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증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중국 증시 반등에 외국인 매도 증가

- ▶ 상해종합지수 0.5% 상승, 출자전환 가속화 기대감에 은행주들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 ▶ 홍콩H지수는 0.3% 하락, 본토자금 유출속도 가속화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자 악재로 작용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5% 상승, 공정건설, 보험, 주얼리, 은행, 석유 등의 업종이 강세

상해종합지수는 0.5% 상승한 3,233p로 마감했고, 주간단위로는 0.3% 하락했다. 약보합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상승폭이 확대됐고, 거래대금도 2,264억위안으로 직전 일대비 286억위안 늘었다. 금일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가 2.3%로 시중 예상과 직전치를 상회했고, 생산자물가 상승률 역시 3.3%로 직전치를 크게 상회하며 경기 바닥 확인에 대한 전망이 부각됐다. 게다가 중국 은행을 비롯한 상업은행들이 철강 등 기업들과 출자전환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2017년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감소할 것이란 기대가 부각됐다. 따라서 은행주들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의 반등을 견인했다. 한편 곧 시행할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란 루머가 확산되며 건설주들이 일제히 반등했다. 대형주들이 절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해종합지수와 CSI300 지수가 뚜렷하게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공정건설, 보험, 주얼리, 은행, 석유 등의 업종이 상승한 반면 환경보호, 항공, 소프트웨어 등 성장 산업들이 약세를 보였다. 한편 금일 증시 반등에 외국인들의 차익매물이 급증했으며, 심천주식 순매입액은 4억위안으로 주초대비 크게 감소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0.3% 하락, 헬스케어, 소비재, 부동산 등 모든 업종이 약세

홍콩H지수는 0.3% 하락한 9,868p로 마감했고, 주간단위로는 0.9% 상승했다. 약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등락을 보이다 결국 하락 마감했다. OPEC과 비OPEC간의 회동을 앞두고 관망세가 확대됐다. 본토자금이 유출속도가 빨라진 것과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다만 직전일 국제유가와 미국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과 ECB 양적완화 연장 결정이 호재로 작용하며 하락폭을 제한했다. 헬스케어, 소비재, 부동산 등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분	12/9 (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232.88	0.54	-0.34	3.34	-8.65
심천종합	2,070.01	-0.35	-0.69	0.07	-10.35
차스닥	2,099.89	-0.70	-2.03	-1.13	-22.63
홍콩H	9,867.95	-0.29	0.89	5.22	2.14
Shibor 7일물 금리(% , %p)	2.49	0.08	-0.33	4.34	5.85
Shibor 1개월 금리(% , %p)	3.06	0.86	4.79	11.33	1.80
중국국채 3년물(% , %p)	2.65	0.29	0.89	13.08	3.34
위안/달러 고시환율	6.8972	0.35	0.26	1.68	6.22
역내 위안/달러	6.9035	-0.18	-0.34	-1.62	-5.94
역외 위안/달러	6.9233	-0.16	-0.76	-1.29	-5.12

주: 9일 오후 5시 52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은 코스닥 시장,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 전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해 연말 배당을 노리고 유입된 대량의 현선물 매수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밤사이 ECB가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연장을 밝힘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둔화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으로 마감. 전일에 이어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며 이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한 코스닥은 운송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엔씨소프트의 신작 리니지 레드나이트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케이탑리츠는 리츠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법 개정안 발표에 강세를 나타냄. 넥스트아이는 사후 면세점 시장 진출을 통해 화장품 유통 채널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으며, 메디톡스는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저평가 분석으로 반등세를 기록. 한국전력은 자회사 상장 추진 및 배당 확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반면, 현대상선은 2M 해운동맹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에 큰 폭의 약세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한국전력(015760) ▶45,900 (+3.61%)	자회사 상장 및 배당 확대 기대감에 반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전력 5개 자회사를 2019년까지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주가는 반등세를 나타냄 - 한국전력 주주와 발전 자회사 주주의 형평성 이슈 및 배당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배당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엔씨소프트(015760) ▶242,000 (+11.01%)	리니지 레드나이트 매출 1위 소식에 강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 출시된 리니지 레드나이트가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한 오름세 - 출시 첫날인 전일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지만 초반 부정적인 리뷰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한 모바일 게임이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반등에 힘을 보태는 모습
케이탑리츠(145270) ▶1,830 (+5.78%)	정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에 수혜 기대감이 커지며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리츠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법 개정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이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 - 그 동안 리츠 상장 활성화를 큰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세제 문제가 완화에 따라 공모 상장 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조류독감 관련주	조류독감이 철새의 이동에 따라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 동반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조류독감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에서 시작된 조류독감이 철새의 이동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 동반 강세 - 올해 유행하고 있는 조류독감은 전파력이 큰 'H5N6' 유형의 바이러스로 과거 1,400만마리의 피해를 입혔던 'H5N8' 유형보다 전파력이 크고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판단 - 진바이오텍(086060, +4.62%), 중앙백신(072020, +3.94%), 파루(043200, +1.25%), 제일바이오(052670, +0.45%)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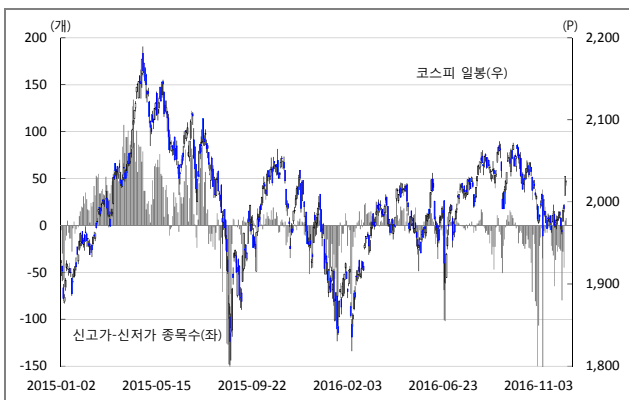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미국증시는 주초반 이탈리아 국민투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혼조세를 보였으나 경기지표 호조,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 지속 및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연장 소식에 힘입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 미국 10월 실업률은 0.3%P 하락한 4.6%를 보였으며, 서비스업 PMI가 57.2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요 경기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투자심리 개선을 견인. 8일 개최된 ECB회의에서는 양적완화 규모가 종전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 규모로 축소를 결정하였지만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특히, 드라기 ECB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자산매입 규모 축소가 테이퍼링(Tapering)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필요하다면 내년 이후에도 QE 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증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 원달러 환율은 ECB의 양적완화 유지로 인해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며 1,160원선에서 마감.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다음주 FOMC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며 2.347%로 거래를 마감
- 국내증시는 주초반 이탈리아 국민투표를 앞두고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미국 경기지표 호조 및 외국인 수급 개선,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연장 소식에 2,000P선을 회복하는 모습. 한주간 코스피 지수는 +2.74% 상승한 2,024.69P로 마감. 한 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 2,364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67억원과 1조 151억원을 순매수함. 코스닥 지수는 주 중반까지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외국인의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간 기준 +1.30% 상승한 594.35P로 마감
- 한편, 광주은행은 수도권 진출을 통한 외형 확대 및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하였으며, 디와이파워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프라투자 확대 공약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며 신고가를 경신. 유니퀘스트는 자회사 드림텍의 지문인식모듈 판매 확대에 따른 턴어라운드와 LDWS(차로이탈경고장치)를 생산하는 피엘케이테크놀로지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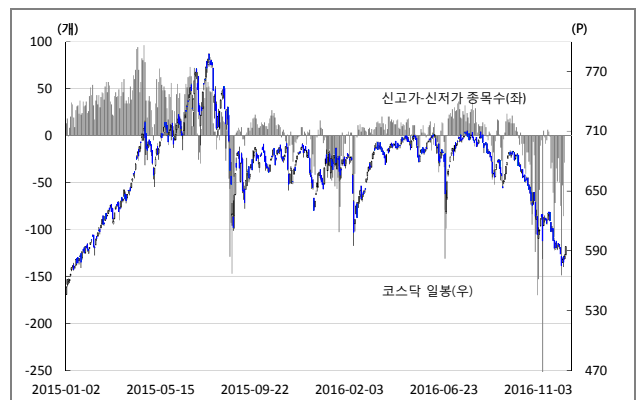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코스피	IT	유통업	유니퀘스트	6,660	11.9	산업재	서비스업	디와이	7,410	5.6
	소재	철강금속	동일산업	81,300	6.6	금융	은행	광주은행	10,650	2.9
	산업재	기계	디와이파워	8,640	5.6					
코스닥	금융	통신서비스	한네트	5,460	40.5	IT	기계,장비	미래컴퍼니	18,500	11.1
	소비재	기계,장비	서연탑메탈	9,910	21.6					

주) 상기 종목들은 12월 9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단기 유망종목: 백산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백산 (035150)	9,690 (+8.3)	8,950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3.9%p 상승한 16.3% 기록. 신발부분의 가동률 상승과 스웨이드 및 차량재 확대에 따른 Product mix 개선이 원인. 글로벌 운동화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긍정적 베트남 공장의 스웨이드 생산으로 이익 모멘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차량 내장재의 경우 고객사 신규모델에 추가 채택되면서 성장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
싸이맥스 (160980)	16,200 (+1.6)	15,950 (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업체인 원익IPS, Semes, Applied Materials, 테스, ASMGK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웨이퍼 이송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삼성전자의 평택 단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성장성 부각될 전망. 삼성전기의 패널레벨패키지(PLP) 양산 투자가 내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큰폭의 매출 성장 가능
베셀 (141000)	5,490 (-13.1)	6,320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의 정부 보조금에 기반한 LCD 생산라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예정된 투자 스케줄에 따라 In-Line 시스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 내년 예상 수주를 감안, 저평가 매력 존재 OLED 공정에 In-Line 시스템 시험 생산 장비 납품 경험과 Tianma 향 OLED 장비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에스에너지 (095910)	7,280 (-29.0)	10,250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 모듈사업과 시스템 프로젝트 사업인 EPC(설계/조달/시공)사업을 영위. 태양광 원자재 가격 하락과 발전소 설치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자회사 에스파워(지분 100%)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전문으로 하는 에스인베스트먼트(신설회사)를 물적 분할함에 따라 EPC 사업의 양적 성장 본격화
유니트론텍 (142210)	7,350 (-15.3)	8,679 (0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문 1위인 Micron사의 국내 반도체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 작년부터 발생한 대만 AUO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유통 매출의 빠른 증가세에 주목 '시리얼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조인트벤처 '유니트론텍차이나' 설립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 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진성티이씨 (036890)	7,930 (+31.5)	6,030 (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인프라투자 확대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인프라투자 증가 기대감으로 Caterpillar, Hitachi 등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이들 업체에 굴삭기 하부 주행체 부품을 공급중인 동사의 수혜 가능성 상존. 비용 절감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유니트론텍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해 수정주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모두투어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모두투어 (080160)	29,550 (+8.8)	27,150 (11/15)	239	21	18	1,542	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에 기여하지 못했던 연결자회사들의 실적이 자유투어를 필두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수요 상승과 점유율 확대에 외형 증가, 인건비와 광고선전비 등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 모두스테이는 내년 1~3개의 운영호텔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돼 순조로운 사업 확장 및 시너지 효과 전망 				
이마트 (139480)	194,500 (+23.9)	157,000 (09/22)	14,600	501	296	10,619	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마트가 90% 지분을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의 제1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하남이 최근 오픈. 2021년까지 총 6개의 복합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 - 스타필드하남은 스포테인먼트 시설과 유명 맛집 등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외형 복합쇼핑몰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63배로 역사적 최저 수준 				
씨엠에스에듀 (225330)	26,100 (-3.0)	26,900 (08/26)	56.8	10.7	8.9	2,244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기반으로 매출 상승세 지속 - 직영점 및 가맹점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해외 진출 본격화 - 16년 예상 PER은 11배 수준으로 주요 사교육업체 평균 예상 PER 17배 수준 대비 저평가 				
비아트론 (190510)	23,250 (-13.9)	27,000 (08/26)	91.6	24.5	17.7	1,731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E를 시작으로 Tianma와 Visionox 등 중국 패널업체들의 flexible OLED 설비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 - LG디스플레이의 6세대 flexible OLED라인 설비투자 관련 장비 발주 예상 - 주요 고객사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 				
대상 (001680)	27,600 (-6.0)	29,350 (06/22)	2,946	131	82	2,288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인신부문이 빠른 공정 효율화 작업으로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베스트코의 실적 회복 기대 -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식품부문의 영업이익률 향상 전망. 내년 초 공장이 완공되는 인도네시아의 전분/전분당 사업추가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 커질 전망 - 올해 예상 PER 12.3배로 업종 평균 21.0배 보다 크게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SK머티리얼즈 (036490)	152,700 (+23.1)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 -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63.36	1,989.86	1,991.89	2,031.07	2,024.69	
	등락폭	-7.25	26.5	2.03	39.18	-6.38	
	등락종목	상승(상한)	205(2)	609(0)	317(1)	620(0)	468(1)
		하락(하한)	629(0)	210(0)	505(0)	202(0)	341(0)
	ADR	80.02	82.19	87.87	85.52	84.85	
	이격도	10 일	99.29	100.59	100.68	102.35	101.77
		20 일	99.24	100.62	100.64	102.54	102.11
	투자심리	70	70	70	80	70	
	거래량	(백만 주)	237	215	204	239	220
	거래대금	(십억 원)	3,072	3,795	3,660	4,956	3,690
코스닥	코스닥지수	575.12	581.35	578.52	584.62	594.35	
	등락폭	-11.61	6.23	-2.83	6.1	9.73	
	등락종목	상승(상한)	202(2)	811(3)	399(3)	727(1)	804(1)
		하락(하한)	917(0)	283(0)	705(2)	357(0)	301(0)
	ADR	86.31	87.36	87.07	88.09	89.65	
	이격도	10 일	96.78	98.32	98.20	99.37	101.08
		20 일	94.78	96.15	95.85	97.17	99.02
	투자심리	40	40	40	50	50	
	거래량	(백만주)	621	546	602	672	594
	거래대금	(십억원)	2,584	2,471	2,797	2,881	2,766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456.5	1,430.7	775.2	232.8	73.9	144.7	97.7	7.7	218.4	35.2
	매도	1,577.5	1,374.9	718.5	135.1	72.3	232.7	75.2	11.6	191.6	26.8
	순매수	-121.0	55.8	56.7	97.7	1.6	-87.9	22.5	-4.0	26.8	8.4
	12월 누계	-1,192.5	265.7	914.9	309.3	77.0	-90.7	104.4	-21.7	536.6	12.0
	16년 누계	-8,353.2	10,090.1	-4,639.7	-816.9	1,136.1	-5,748.9	-1,013.6	-977.9	2,781.9	2,902.8
코스닥	매수	2,460.2	189.3	115.3	45.2	11.1	25.1	10.2	1.9	21.7	19.3
	매도	2,533.3	153.8	81.3	20.0	7.7	24.5	10.2	1.7	17.4	15.6
	순매수	-73.1	35.5	33.9	25.2	3.5	0.7	0.0	0.2	4.3	3.7
	12월 누계	-4.9	86.2	-31.7	47.4	7.6	-37.0	-13.1	1.0	-37.5	-49.7
	16년 누계	5,886.1	750.7	-4,445.0	-206.1	-318.7	-1,674.6	-751.1	-151.5	-1,343.5	-2,191.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의약품	2,592	미분류 -77,447
건설업	1,274	전기전자 -32,944
화학	1,268	서비스업 -11,350
한화케미칼	3,742	KODEX 200 -51,962
코스맥스	2,611	삼성전자 -30,985
호텔신라	2,587	KODEX 레버리지 -13,299
LG화학	2,394	TIGER 200 -6,419
한미약품	2,091	하나금융지주 -5,670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3,262	보험업	-6,785
운수장비	10,994	미분류	-6,782
서비스업	10,911	철강금속	-5,191
LG화학	8,028	신한지주	-5,705
현대모비스	7,646	POSCO	-5,557
LG	5,644	KODEX 200	-5,159
한화케미칼	4,585	삼성물산	-4,431
KB금융	4,218	현대산업	-4,05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	616	미분류	-26,257
건설업	413	통신업	-905
운수장비	323	기계	-864
KBSTAR 200선물인버스2X	6,547	KODEX 레버리지	-28,828
KODEX 인버스	1,660	KODEX 200선물인버스2X	-1,911
TIGER 200	514	TIGER 레버리지	-1,631
LG하우시스	397	고려아연	-950
한국가스공사	364	SK텔레콤	-87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9,083	서비스업	-5,495
운수장비	7,174	철강금속	-3,359
화학	6,902	보험업	-2,474
현대차	8,219	엔씨소프트	-4,761
삼성전자	6,950	고려아연	-3,609
TIGER 코스닥150	5,482	LG전자	-2,153
한화케미칼	4,190	BNK금융지주	-1,692
TIGER 200	3,228	한국항공우주	-1,623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39,933	보험업	-15,586
운수장비	24,154	미분류	-13,247
전기전자	23,981	철강금속	-12,686
KODEX 레버리지	25,661	KODEX 인버스	-23,099
SK하이닉스	15,966	KODEX 200선물인버스2X	-10,171
LG화학	15,719	POSCO	-9,716
현대차	14,615	삼성바이오로직스	-9,299
한화케미칼	14,529	삼성물산	-6,897
현대모비스	13,200	고려아연	-6,114
KB금융	7,523	하나금융지주	-5,532
LG	7,044	동부화재	-5,490
KODEX 200	6,934	현대해상	-5,362
삼성SDI	5,529	KODEX 레버리지	-5,32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금속	30,685	전기전자	-44,716
운수장비	28,309	건설업	-5,178
서비스업	17,696	화학	-2,958
현대차	31,588	SK하이닉스	-36,664
POSCO	21,662	삼성전자	-12,958
엔씨소프트	15,506	현대모비스	-11,632
신한지주	13,659	SK이노베이션	-11,069
한국전력	13,063	KB금융	-10,296
두산밥캣	9,865	삼성SDI	-8,881
LG전자	9,181	롯데케미칼	-6,158
하나금융지주	7,182	한화케미칼	-4,935
우리은행	6,480	LG	-4,654
한미약품	5,753	호텔신라	-3,89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1,395	음식료,담배	-2,953
방송서비스	1,294	화학	-791
디지털컨텐츠	1,238	소프트웨어	-770
CJ E&M	1,504	현성바이탈	-2,280
에스엠	1,252	셀트리온	-569
컴투스	1,240	포스코켄텍	-527
콜마비엔에이치	1,083	신라젠	-488
디오	698	제이콘텐트리	-48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3,427	방송서비스	-965
IT부품	1,605	반도체	-806
기계,장비	1,286	의료,정밀기기	-356
메디톡스	2,241	CJ E&M	-1,230
씨젠	733	SK머티리얼즈	-365
인터플렉스	699	AP시스템	-299
모두투어	552	바텍	-283
툽텍	420	휴젤	-24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983	계약	-592
오락,문화	125	연구,개발	-295
화학	120	반도체	-62
더블유게임즈	679	셀트리온계약	-436
SKC코오롱PI	143	신라젠	-295
웹젠	138	코오롱생명과학	-264
파라다이스	125	실리콘웍스	-153
메디톡스	117	에스티팜	-51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2,737	반도체	-1,299
인터넷	494	음식료,담배	-580
교육	487	방송서비스	-240
코오롱생명과학	1,573	셀트리온	-539
메디톡스	1,413	현성바이탈	-414
카카오	494	티씨케이	-394
청담러닝	491	CJ오쇼핑	-320
우리산업	432	실리콘웍스	-265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14,758	음식료,담배	-5,588
디지털컨텐츠	4,602	소프트웨어	-729
인터넷	4,362	기타서비스	-680
메디톡스	4,384	현성바이탈	-5,165
카카오	4,367	신라젠	-1,123
CJ E&M	4,207	재영솔루텍	-824
셀트리온	4,032	셀루메드	-720
컴투스	3,112	이오테크닉스	-709
씨젠	2,227	NICE평가정보	-674
코오롱생명과학	1,956	실리콘웍스	-657
에스엠	1,922	오텍	-605
디오	1,749	이에스브이	-567
오스템임플란트	1,625	AP시스템	-559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4,470	연구,개발	-1,103
기계,장비	4,470	인터넷	-858
오락,문화	3,177	운송장비,부품	-754
파인디앤씨	4,507	휴젤	-2,171
지엔코	2,153	홈캐스트	-1,483
메디톡스	1,858	내츄럴엔도텍	-1,449
서울반도체	1,164	카카오	-1,386
파라다이스	1,162	지스마트글로벌	-1,270
NHN한국사이버결제	1,021	우리산업	-1,246
셀트리온	1,009	KJ프리텍	-1,220
디오	1,000	에이치엘비	-1,188
이오테크닉스	912	클리오	-914
모두투어	840	원익IPS	-814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유성기업	77 일	POSCO	22 일
대구백화점	44 일	일성신약	21 일
삼영전자	33 일	BYC	20 일
TREX 200	28 일	현대글로비스	15 일
우신시스템	27 일	메리츠종금증권	15 일
대한제분	27 일	제주항공	14 일
삼양통상	25 일	동국제강	14 일
화천기공	25 일	하나투어	13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이티젠	15 일	금화피에스시	30 일
아모텍	15 일	포스코엠텍	22 일
서울반도체	15 일	심텍	17 일
영풍정밀	14 일	데브시스템즈	16 일
KG ETS	13 일	한스바이오메드	15 일
엘엠에스	12 일	에스엠	15 일
슈피겐코리아	11 일	에스티아이	14 일
더블유게임즈	11 일	성우하이텍	1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271,243	POSCO	162,635
KODEX 200	183,611	현대차	80,662
TIGER 200	168,841	LG화학	52,546
삼성전자	159,356	신한지주	52,508
LG화학	94,803	KODEX 레버리지	36,908
SK하이닉스	81,277	현대제철	32,480
현대제철	75,853	엔씨소프트	29,076
현대차	73,340	삼성바이오로직스	26,649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9,282	테스	5,083
컴투스	8,446	파인디앤씨	4,522
비에이치	8,164	뉴트리바이오텍	4,338
동진씨미캡	7,118	지엔코	4,184
원익IPS	6,965	오스템임플란트	3,998
홀캐스트	6,334	심텍	3,759
카카오	6,013	툽텍	3,686
씨젠	5,704	서울반도체	3,683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24,154	28,309	52,463
서비스업	13,583	17,696	31,279
전기가스	2,908	11,937	14,845
현대차	14,615	31,588	46,203
KODEX 레버리지	25,661	1,901	27,562
LG화학	15,719	3,516	19,234
두산밥캣	3,653	9,865	13,518
하나투어	4,308	5,239	9,547
한미약품	2,781	5,753	8,534
현대제철	4,937	3,223	8,159
LG생활건강	5,317	2,349	7,667
기아차	4,259	3,003	7,262
LG하우시스	2,502	3,439	5,941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14,758	2,174	16,932
IT부품	2,271	4,470	6,742
디지털컨텐츠	4,602	1,930	6,532
메디투스	4,384	1,858	6,243
셀트리온	4,032	1,009	5,041
디오	1,749	1,000	2,749
씨젠	2,227	278	2,505
오스템임플란트	1,625	790	2,416
에스엠	1,922	490	2,412
파라다이스	906	1,162	2,068
코오롱생명과학	1,956	5	1,961
모두투어	1,085	840	1,924
서울반도체	385	1,164	1,55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TIGER 가격조정	22 일	한전기술	31 일	모다이노칩	32 일	해덕파워웨이	48 일
KODEX 골드선물(H)	21 일	SJM홀딩스	31 일	신진에스엠	22 일	동일기연	46 일
코오롱플라스틱	20 일	KOSEF 200 선물	22 일	아진산업	22 일	PN풍년	37 일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7 일	삼영전자	20 일	일지테크	20 일	인화정공	28 일
동원F&B	16 일	세기상사	20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19 일	신성델타테크	27 일
태경화학	16 일	KODEX 200	18 일	엔에이치스팩3호	18 일	루미마이크로	26 일
메리츠종금증권	15 일	태경화학	17 일	상아프론테크	15 일	한국캐피탈	26 일
금호산업	15 일	골든브릿지증권	17 일	신한제2호SPAC	14 일	덕산하이메탈	2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200선물인버스2X	-129,295	TIGER 200	-168,952	신라젠	-52,569	원익IPS	-6,937
KODEX 인버스	-92,164	KODEX 200	-147,655	셀트리온	-9,789	신라젠	-5,431
TIGER 200선물인버스2X	-57,912	삼성전자	-85,606	애니젠	-6,167	CJ E&M	-4,579
한미약품	-50,782	NAVER	-49,739	현성바이탈	-5,165	카카오	-4,554
엔씨소프트	-30,642	현대모비스	-42,748	덕산네오룩스	-3,625	솔브레인	-3,236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22,235	삼성SDI	-38,918	뉴트리바이오텍	-3,186	바이로메드	-2,813
POSCO	-19,823	SK이노베이션	-31,090	이엔에프테크놀로지	-3,038	뷰웍스	-2,389
대한항공	-11,758	KODEX 인버스	-24,355	CJ프레시웨이	-2,899	셀트리온	-2,245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23,981	-44,716	-20,735	음식료,담배	-5,588	1,362	-4,226
보험업	-15,586	5,379	-10,208	운송장비,부품	-488	-754	-1,242
미분류	-13,247	5,966	-7,282	연구,개발	87	-1,103	-1,016
SK이노베이션	-1,846	-11,069	-12,915	현성바이탈	-5,165	-244	-5,410
삼성바이오로직스	-9,299	-1,832	-11,131	에이치엘비	-319	-1,188	-1,507
롯데케미칼	-3,353	-6,158	-9,512	AP시스템	-559	-467	-1,026
KT&G	-2,116	-3,396	-5,512	CJ오쇼핑	-385	-582	-967
현대산업	-2,779	-2,690	-5,469	뷰웍스	-549	-368	-917
KT	-4,050	-18	-4,067	비트컴퓨터	-332	-408	-740
GS	-1,597	-2,260	-3,858	NICE평가정보	-674	-11	-685
KB손해보험	-2,255	-1,310	-3,565	메디포스트	-377	-215	-592
BNK금융지주	-2,029	-951	-2,981	이에스브이	-567	-9	-576
SK	-1,651	-1,179	-2,830	아이엠	0	-573	-57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2	74,535	
POSCO	63	17,322	
아모레퍼시픽	33	10,471	
신한지주	222	10,337	
LG화학	39	9,670	
삼성전기	211	9,591	
엔씨소프트	40	9,162	
삼성바이오로직스	59	8,844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47	4,621	
메디톡스	7	2,475	
휴캐스트	88	1,763	
카카오	13	1,005	
원익IPS	45	974	
인트론바이오	32	848	
바이로메드	8	773	
코미팜	20	69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021	7,198,000
SK하이닉스	32,950	1,523,951
NAVER	1,489	1,197,535
현대중공업	6,373	981,452
POSCO	3,266	911,325
현대차	5,271	748,525
신한지주	14,279	675,414
KT&G	6,396	671,553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3,761	2,335,664
카카오	8,542	651,771
로엔	3,401	255,443
바이로메드	1,994	192,573
메디톡스	475	159,078
컴투스	1,912	158,881
코미팜	4,437	149,511
파라다이스	10,117	124,44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미분류	268	증권	-10,449
비금속	86	운수장비	-9,989
섬유의복	74	전기전자	-5,634
신성솔라에너지	3,330	메리츠종금증권	-5,911
TIGER 코스닥150	1,640	삼성중공업	-5,157
두산인프라코어	846	미래에셋대우	-3,012
금호타이어	711	팬오션	-2,440
JW홀딩스	386	LG전자	-2,335
현대그린푸드	338	한화테크윈	-2,310
한미사이언스	322	삼성전기	-2,192
삼성SDI	310	SK하이닉스	-1,761
쌍용머티리얼	276	기아차	-1,378
흥아해운	274	대우건설	-1,132

KOSDAQ			
순 증		순 감	
의료,정밀기기	525	오락,문화	-1,971
연구,개발	415	인터넷	-1,369
계약	337	정보기기	-1,333
솔고바이오	1,017	파라다이스	-1,800
세종텔레콤	655	카카오	-1,322
셀루메드	379	제이스테판	-1,170
에스엔유	364	인터플렉스	-506
셀트리온	320	케이엘넷	-441
차이나하오란	300	우리기술	-422
바른전자	287	서한	-401
코미팜	226	씨티엘	-292
시노펙스	218	매커스	-276
CMG계약	218	서희건설	-25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외국인	10,090.1	265.7	236.7	-4.9	79.1	78.4	28.3	55.8
기관계	-4,639.7	914.9	1,015.1	101.3	292.9	-90.8	655.1	56.7
(투신)	-5,748.9	-90.7	-54.6	21.1	-4.1	45.6	-29.3	-87.9
(연기금)	2,891.9	434.5	436.0	-14.9	282.6	53.2	90.6	24.5
(은행)	-977.9	-21.7	-22.6	-3.3	0.0	-2.1	-13.2	-4.0
(보험)	1,136.1	77.0	48.1	14.8	16.9	-4.3	19.2	1.6
개인	-8,353.2	-1,192.5	-1,236.4	-114.4	-360.5	14.1	-654.6	-121.0
기타	2,902.8	12.0	-15.4	18.0	-11.5	-1.6	-28.8	8.4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12/2(금)	12/5(월)	12/6(화)	12/7(수)	12/8(목)
KOSPI	2,011.3	1,915.6	1,961.3	1,970.6	1,963.4	1,989.9	1,991.9	2,031.1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2,795.3	22,100.8	20,915.4	20,830.4	20,884.2
(증감액)	-3,802.5	1,630.7	6,853.1	407.3	-694.5	-1,185.4	-85.0	53.8
(회전율)	29.9	34.0	28.8	26.6	25.6	30.0	31.0	37.5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517.7	-630.1	-1,107.8	-180.7	-244.9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2,981.7	2,976.0	2,949.9	2,909.2	2,895.8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3,761.2	3,753.3	3,730.6	3,685.2	3,664.4
미수금	92.9	117.6	151.0	94.3	103.4	111.1	119.6	109.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2/2(금)	12/5(월)	12/6(화)	12/7(수)	12/8(목)
전체주식형	74,292	-6,513	-680	-318	-41	-102	260	-128
(ex.ETF)		-6,619	-123	-33	7	-5	-33	-26
국내주식형	56,551	-5,843	-660	-312	-35	-105	263	-126
(ex.ETF)		-5,914	-104	-27	13	-8	-30	-24
해외주식형	17,741	-670	-20	-6	-6	2	-4	-2
(ex.ETF)		-706	-20	-6	-6	2	-4	-2
주식혼합형	8,135	-93	7	-4	29	-4	-5	-7
채권혼합형	27,434	-3,348	-270	-15	-28	-22	-48	-92
채권형	107,075	17,760	-464	10	-105	-159	-34	-147
MMF	120,015	25,427	2,784	3,204	3,883	1,463	42	-6,11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한국	8,867	228	203	-4	68	67	24	48
대만	10,101	188	471	-192	209	58	397	-
인도	4,118	-35	42	-41	30	52	-	-
인도네시아	1,328	-199	-165	-58	-45	-27	-35	-
태국	2,310	83	73	-	35	8	30	-
남아공	-8,448	-46	54	-12	10	99	-43	-
필리핀	277	3	5	-6	-1	3	9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회사채 (AA-)	2.11	2.17	2.18	2.18	2.16	2.18
회사채 (BBB-)	8.06	8.28	8.29	8.29	8.27	8.29
국고채 (3년)	1.66	1.72	1.73	1.73	1.71	1.73
국고채 (5년)	1.81	1.93	1.93	1.93	1.88	1.93
국고채 (10년)	2.08	2.19	2.20	2.19	2.15	2.20
미 국채 (10년)	2.27	2.39	2.38	2.34	2.40	-
일 국채 (10년)	0.27	0.04	0.05	0.03	0.06	-
원/달러	1,172.50	1,174.60	1,171.40	1,167.90	1,158.50	1,165.90
원/100엔	972.63	1,028.82	1,028.54	1,024.38	1,016.67	1,019.05
엔/달러	120.55	114.17	113.89	114.01	113.95	114.41
달러/유로	1.09	1.05	1.07	1.07	1.06	1.06
DDR3 1Gb (1333MHz)	1.00	1.14	1.14	1.14	1.14	-
DDR3 2Gb (1333MHz)	1.13	1.44	1.45	1.46	1.46	-
NAND Flash 16Gb (MLC)	1.46	1.86	1.86	1.86	1.86	-
CRB 지수	176.81	193.47	192.52	190.85	191.41	-
LME 지수	2,217.9	2,842.0	2,821.0	2,785.4	2,776.4	-
BDI	478	1,196	1,186	1,162	1,122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51.79	50.93	49.77	50.84	-
금 (달러/온스)	1,060.00	1,162.20	1,172.50	1,177.65	1,171.0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5	6	7	8	9
美> 연준 에반스 연설 11월 마켓 서비스 PMI (54.6, 54.8, 54.7) 中> 선강통 개통 11월 차이신 PMI 서비스업 (51.7, 51.0, 52.4) 日> 11월 닛케이 PMI 서비스업 (51.8, n/a, 50.5) 유럽> 이탈리아 국민투표(4일) 11월 마켓 서비스 PMI (53.9, 54.1, 54.1)	美> 10월 무역수지(십억달러) (-42.6, -42.0, -36.4) 10월 제조업수주 (2.7%, 2.5%, 0.3%) 10월 내구재 주문 (4.6%, 2.0%, 4.8%) 유럽> 11월 GDP SA 전기대비 (0.3%, 0.3%, 0.3%) 11월 GDP SA YoY (1.7%, 1.6%, 1.6%)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0.7%, n/a, -9.4%)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58, 255, 268) 中> 11월 수출 YoY (0.1%, -5.0%, -7.3%) 日> 10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1719.9, 1559, 1821.0) 3Q GDP SA 전기대비 (0.3%, 0.5%, 0.5%) 3Q GDP 연간화 SA QoQ (1.3%, 2.3%, 2.2%) 유럽> 12월 ECB 기준금리 결정 (-0.4%, -0.4%, -0.4%)	美> OPEC 회담 10월 도매재고 MoM (n/a, -0.4%, -0.4%) 12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94.4, 93.8) 中> 11월 CPI YoY (2.3%, 2.2%, 2.1%) 11월 PPI YoY (3.3%, 2.2%, 1.2%) 日> 11월 통화량 M3 YoY (3.4%, 3.2%, 3.2%)
12	13	14	15	16
日> 10월 핵심기계수주 MoM (n/a, 1.1%, -3.3%) 11월 PPI YoY (n/a, -2.3%, -2.7%) 10월 3차 산업 지수 MoM (n/a, 0.3%, -0.1%)	中> 11월 광공업생산 YoY (n/a, 6.1%, 6.1%) 11월 소매판매 YoY (n/a, 10.2%, 10.0%) 유럽> 12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15.8)	美> FOMC 금리 결정 (n/a, 0.75%, 0.5%)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0.7%) 11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3%, 0.8%) 11월 광공업 생산 MoM (n/a, 0.1%, 0.0%) 日> 10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1%)	韓> 금융통화위원회 (n/a, 1.25%,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55, 258) 11월 CPI MoM (n/a, 0.2%, 0.4%) 12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n/a, 54.3, 54.1) 日> 12월 닛케이 PMI 제조업 (n/a, n/a, 51.3) 유럽>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53.7, 53.7)	美> 11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230, 1323) 유럽> 11월 CPI YoY (n/a, 0.6%, 0.6%) 11월 CPI 근원 YoY (n/a, 0.8%, 0.8%)
19	20	21	22	23
	韓> 11월 PPI YoY (n/a, n/a, -0.2%)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日> 10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2%)	美> 3Q GDP 연간화 QoQ (n/a, 3.3%, 3.2%) 11월 기준주택매매(백만) (n/a, n/a, 5.6)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유럽> 12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6.1)	美> 11월 선행지수 MoM (n/a, 0.2%, 0.1%) 11월 개인소비지수 MoM (n/a, 0.5%, 0.3%)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